

소송 · 과정 | Der Prozess · Der Prozess

영화 설치 작품, <소송 · 과정 | Der Prozess · Der Prozess> 은 프란츠 카프카의 문학작품 “소송”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대사들은 문학적 텍스트를 살려 각색하고 최소한의 연출을 통하여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체포, 첫 심리, 태형관, 숙부·레니, 화가, 상인 블로크·변호사와 해약 장면들로 구성되었다. 이 영화는 문학작품, 영화, 연극, 미술설치의 모든 요소가 혼합되었는데 전시 공간에 의해 더 해체되었다.

공간이 특별한 부분인데, 우선 미술학교에서 촬영하여 학교 건물의 관료적인 부분과 잡동사니가 많은 미술 공간이 혼합되었고, 충실하게 옮기려 한 소설 이야기의 공간과 실제 일상 공간의 혼합이다. 또한 거의 한 공간에서 되풀이 되어 촬영된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의 ‘口’ 모양 복도로 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파편화되어, 공간들의 연결성을 보기 어렵고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혼합성은 여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갤러리 공간에서 다시 한 번 중첩되고 증식되고 파편화 되면서 이 소설의 키워드인 욕망의 변식, 증식, 운동성을 공간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요세프 카는 어느 날 아침 그의 하숙집에 온 두 감시인들에 의해 체포 소식을 듣고 그 옆방에 하숙하는 뷔르스트너양 방에서 감독을 만난다. 감독은 이 날 카를 위한다며 그의 직장 동료들 3명을 이 하숙집에 데리고 왔다. 카가 은행에서 심리가 열리니 출두하라는 명령 전화를 받고 간 곳은 어느 아파트 건물 6층에 있었고 예심판사며 수많은 법 관리들, 소송관련자들이 와 있었는데, 카가 한 주 후에 다시 찾아 갔을 때는 이 공간이 재판소에서 일하는 정리 가족이 사는 거실이 되어 있다. 카가 은행에서 늦게 까지 남아 있다 퇴근하려 할 때 한 창고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 하숙집으로 왔던 감시인들이 태형관에게서 벌을 받고 있다. 카는 숙부의 소개로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이 변호사 집에서 재판소 사무국장이나 다른 소송 의뢰인 블로크를 만난다. 어느 날 카가 일하는 은행에 업무 관계로 공장주가 왔을 때, 카를 돕겠다며 화가를 소개한다. 이 화가 티토렐리는 판사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로 그가 사는 곳은 재판소에서 빌려준 곳이며 그 뒷문은 재판소와 통해 있다.

이렇게 일상공간과 법과 관련된 공적인 공간이 섞여있고 인접된 상황이 전시에서 시도된다. 보안여관 갤러리의 각방, 복도, 천정에 연출된 하숙집, 은행사무실, 재판소, 변호사의 집, 화가의 작업실이 연결되고 섞이면서 서로의 경계가 모호하게 배치된다. 법과 관련 있는 감시인, 태형관, 판사, 변호인들, 정리, 화가, 이들 모두는 카를 도와준다면 열정을 보이는데, 초월적이고 강력한 존재가 위에 있다고 인정한 채, 사건의 근본적 이유는 알고자 하지 않고 그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할 뿐이다. 이들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고 톱니바퀴의 부품이 되길 선망하며 권력 시스템과 하나가 되어 있다. 소송 과정은 이러한 다의적인 욕망들이 그물망처럼 얽혀 변식되는 장소이자 과정인데 이는 그들의 허영심과 과장 그리고 일상공간의 여기저기서 웅얼거림으로 나타난다.

화가 티토렐리는 카에게 ‘소송을 무제한 연기’함으로써 법으로 부터 출구를 제안하지만, 카는 변호사의 변론을 거절하고 스스로 변론하기로 함으로써 법으로부터 이탈을 시도한다. 그는 역시 법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인 여인들의 유혹을 따라가며 법이 가진 초월적 위상, 힘에서 엇갈린 길을 가게 되고, 이렇게 그는 법의 욕망을 해체한다. 한편 욕망은 법의 근처에서 관능적, 외설적 욕망으로 들어난다. 심리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법학도와 정리 부인의 정사, 예심판사의 책에 있는 포르노 그림, 정리부인의 스타킹, 몸에 꼭 긴

태형관의 옷 등등.

그리고 미완성으로 된 작품의 특성은 공간과 시간을 재구성하고 재배치할 가능성을 크게 주는데, 이렇게 서사를 공간적 설치로 풀어내게 되고, 관람자들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작품을 보면서 각자 순서와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전시 중에 또한 인터랙티브 형식이 개입한다. 관람자들이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 원하면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 전화의 목소리는 이미 체포된 사람에게 출두 메시지를 전달한다. 관람자들은 체포되었지만 카가 그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시를 감상하거나 그곳을 떠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전시에 관한 작가의 글(부분적으로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카프카” 글을 인용함)

